지구밖 송금 십일조

(눅11:37-54)

37.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38.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39.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40.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41.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42.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43.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44.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45.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46.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47.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48.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49.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50.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51.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52.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53.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54.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지구밖 송금 십일조>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십일조에 대해서 구약에서부터 얘기가 쭉 되어 오다가,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성경 상에서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결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리새인에 대한 저주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바리새인과의 논쟁가운데에 언급하신 십일조 이야기, 정말 십일조에 대해서, 그 의미와 뜻을 우리에게 가장 명확하게 전달해 주는 본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뜻 보면은, 그냥 예수님께서 십일조를 금하지 않으셨다, 십일조와 공의와 하나님 사랑을 같이하라고 말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십일조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의미가 오늘 본문을 통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포인트로 접근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바리새인들이 십일조를 한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언급하신 이 포인트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송금, 하니까 뉴스에서 최근에 났던 기사가 생각이 납니다.
제주도에 있는 모 농업협동조합에서 그 협동조합 사무를 보는 사람이 송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에게 보내져야 될 9,540,000이라는 큰돈이 잘못 송금이 되서 김 모 씨에게 보내졌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이 조합이, 잘못 송금이 된 계좌의 주인인 김 모 씨에게, 9,540,000원 전액을 다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 돈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김 모 씨가 거절합니다.
9,540,000 자기 계좌에 들어온 돈을 반환할 것을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이 벌어졌어요.
재판이 벌어진 결과 전액을 다 반환할 뿐만 아니라 벌금까지 내게 됩니다.
벌금 70만원 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아! 이 김 모 씨라는 분 재미있는 분이에요.
아니 잘못 된 건데 왜 그걸 반환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요?

여러분 십일조는 마찬가지로, 잘못 송금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반환청구입니다.
지금 천국이 지구 바깥에 와 있지 않습니까?
지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삶,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구체적이고 피부에 닫게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지구라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천국이 붙어있습니다.
이 세상 바깥에 천국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십일조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천국에서 반환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 안에서, 얻게 되는 모든 소출, 이제 요번 돌아오는 주일이면은 추석인데, 모든 소출에 대해서 반환청구를 하는 겁니다.
단, 지구 내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수입의 반환청구를 하되 십분의 일만 반환을 하면, 내게 주어져 있는 내 계좌에 들어온 십 분의 구에 대해서는, 허락을 하겠다는 것이 십일조의 참 뜻입니다.
이러한 뜻의 십일조 이야기를, 바리새인과 이 깨끗함의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주님께서 언급하십니다.

십일조 이야기가 어떤 논리적인 전개 끝에 나오는가 하면,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바리새인을 비난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그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한 예로써 십일조 문제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은 '너희가 십일조를 내되'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는 드리되' 왜 이 말씀을 하시냐 하면, 십일조의 규정이 내 삶에서 내가 얻게 되는 모든 소출에 대해서 십분의 일을 내는 것이지마는,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는 율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들이 훨씬 더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좋다는 것

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짓까지 하면서 박하나 운향과 채소까지도 십분의 일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십일조를, 이렇게 남다르게 더욱더 열심히 드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십일조를,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연결을 시켜버리십니다.
여기에 십일조의 참 내용이 있다는 것이에요.

십일조는, 공의를 행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연결이 되어야만 되는 그러한 속뜻을 갖고 있는 우리의 신앙행위라는 겁니다.
그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십일조의 의미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십일조를 내고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헌신과 충성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십일조가 연결이 되지 않을 때, 십일조를 내는 그 자체가 탐욕과 악독의 소산이라는 겁니다.
야! 목회하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 속에 탐욕이 있는지 악독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십일조를 내기만 하면은 그야말로 짱인 교인이에요.
목회하는 입장에서 교회 살림을 돌봐야 되는 당회 장로님들의 입장에서는, 십일조 내는 교인이면 끝입니다.
그리고 그 속이야 뭐 악독이 가득하는 탐욕이 가득하든 뭐 그건 상관할 바도 아니고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십일조만 내면 감사하고 좋고 신앙이 좋은 교인이지요 뭐.
그런데 박하와 운향과 채소까지도 구분해서 특별하게 십일조를 내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악독과 탐욕이 가득한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가 십일조를 내는 것이 공의와 하나님 사랑과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공의가 뭡니까?
정의라고도 할 수 있고 공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뭘 뜻하는 겁니까?
정의! 공의!
분배의 균등? 재판의 공정? 뭐 이런 걸 말하는 겁니까?
맞아요, 다 포함해요, 그러나 그 이상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것과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면서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십자가를

받아들일 자들에게 있어져야 될 삶에서의 행위를 말씀하실 때에, 공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 이상을 뜻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 앞에서 다 봤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내 가까이 왔다.
이때 하나님의 손이 뭐라고요?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서'
주님의 몸은, 행위하고 계시는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계시는 주님의 몸은 하나님의 장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공의라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이 땅에 내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장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장갑, 하나님의 뜻의 손이 와서 끼시는 장갑이 된다는 뜻이 바로 공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언제나 죽음을 전제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애인이 생겼다 그러면, 그 애인 이외의 모든 이성에 대해서는 다 죽어야 애인으로 성립합니다.
이 여자도 좋고 저 여자도 좋고 저 저 여자도 좋은 상태에서는 애인이라는 게 성립할 수 없습니다.
모~든 여자에 대해 죽어야 한 여자가 내 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가서 붙을 모~든 대상이 죽어버릴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주님께서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 인격적으로 나와 연합해야 될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이 지구 안에서 내 마음을 잡아 댕길만한 좋은, 모~든 것들에 대해 내 마음이 죽어버리고, 지구 바깥에 하늘에 계신 천국, 가까이 와 있는 천국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또한 앞에서 우리가 본 강청기도의 유일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이룰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을 잡아당기는 모든 것들에 대해 죽고, 다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부활 할 때는, 이제는 내 마음은 부활한 그 상태에서는, 오직 천국에 계신 지구 바깥에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만 드리기로 마음을 먹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의 자세이고,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주님이 하나님과 교제하듯이 교제할 날을 기다리며 성령의 임재를 기도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구 바깥의 세상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십일조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지구 바깥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내 마음이 온통 지구 바깥에 계신 하나님께 다 드려지고, 이 몸도 지구 바깥에 계신 하나님께서 뜻을 손처럼 내미셔서, 장갑처럼 끼며 살 때에, 이 지구 안에서 내게 주어지는 모~든 소출은 지구 바깥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십일조 정신의 시작입니다.
지금 지구 안에서 내게 주어지는 수입이고 소출이지만, 이게 주어지는 것은 지구의 땅으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고, 지구 바깥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의 의식 속에서는, 지구 바깥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보내진 것입니다.
내 계좌에 입금된 송금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일조는 그 지구 바깥에 계신 하나님을, 지금 인정한다는 내 마음이 지금 연결 되어 있다는, 지구 바깥의 하나님과 연결 되어 있다는 싸인입니다,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십일조를 드리지 않는 다는 것은 내가 지금 지구 바깥에 가까이 와 있는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별의 별 말을 다해도, 나를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고 몸으로 때우는 것 얼마든지 합니다, 그런데 십일조는 안 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십일조를 내라고 하신 그 주님의 속뜻을 살펴볼 때, 지구 바깥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내 마음이 이 지구내의 나의 삶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악독과 탐욕이 가득한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마음이 이 지구 내에서 내 삶에 묶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독과 탐욕이 가득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볼 때 평토장한 무덤 같다 그랬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아무리, 요즘 말해서 안 철수, 문 재인, 박 근혜, 네거티브 공세를 펼칩니다.
네거티브 공세라는 것은, 그들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부적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부도덕함이라든지, 부패한 경험이라든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작은 이권을 탐했다든지 하는, 그런 모든 부정적인 경력들을 다 들추어내는 게 네거티브 공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네거티브 공세를 펼쳤을 때에,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은, 사람들의 깨달음 속에서는, 사람들의 통찰의 한계 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뭘 잘못했는지 잡아낼 수 가 없이 깨끗하게 산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어떨 때?
내 마음이 이 지구 바깥으로 하나님께로 빠져 나가지를 못한 채, 마음이 지구내의 삶에 머물러 있게 될 때,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십일조를 냅니다.
지구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 십일조를 낼 때, 십일조의 의도는 무엇이냐?
내 지구 안에서의 삶의 개선과 향상을 위해서 내는 겁니다.
주님이 두 번째 뭐라 그러시냐 하면, 너희는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왜 십일조를 냅니까?
박하와 운향과 채소의 십일조를 특별히 아주 열심으로 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하게끔 만듭니다.
십일조로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악독한 거라는 거예요, 십일조를 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지구 내에서 내 삶의 향상과 개선을 위하여 십일조를 냅니다.
이게 바로 악독한 것이고 이게 바로 탐욕에 젖은 거라는 겁니다.
십일조는, 내 삶을 지구 내에서 영위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지구 바깥으로 버리는 겁니다.
전혀 지구 내의 내 삶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버리다시피 하는 겁니다.
내 삶과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왜 그렇게 버리다시피 지구 바깥으로 송금을 하느냐?

지구 바깥에 계신 하나님께 송금을 하느냐?
이 지구 안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소출이 지구 밖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지구 안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고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되 지금 연결된 사람은, 반드시 모든 소출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반환청구에서 십분의 일을 하나님께 돌려 드리게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다가 십일조를 냅니까?
교회에다 내시면 되요.
왜 교회에다 냅니까?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이 세상 지구 안에서의 삶의 현장에 내 마음이 묶여 버립니다.
그런데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가면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가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곳이 교회입니다.
다 같이 모여서 모두가 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설교 중에, 기도 중에 주님의 십자가에서 연합해서 이 세상에 대해 죽고, 이 세상에 대해 죽는다는 것은, 사업 때문에 급박하다 왔어도 장사하다 왔어도 아이 때문에 고생하다 왔어도, 내일 입학시험을 보더라도 그 모든 세상일에 대해서 죽고, 마음이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오직 하늘로만 향하기 위하여 교회에 모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구 밖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주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다 십일조를 냅니다.
왜? 십일조는 교회 바깥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싸인을 내는 것이니까.
지구 바깥에서부터 지구 내에 있는 모든 것이 주어지고 있다는 걸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이니까.

근데 오늘 읽지 않은 부분에 율법사의 얘기가 나옵니다.
율법사가 짐을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하나 까딱 안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핍박한다고 얘기합니다.
선지자와 예언자가 뭐에요?
하늘과 땅을 잇는 고리들이에요.

그 고리들을 끊어 내는 겁니다.
어떻게 하늘과 땅의 연결을 끊어 냅니까?
교회가 지금 저주 받고 있는 율법사처럼, 교인들로 하여금 하늘과 땅의 연결을 끊도록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 안에서의 삶을 집중할 유일한 대상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교회에 충성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전부 이 지구내의 삶을 개선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하늘과 땅의 연결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일조도 어떻게 되느냐, 더 많은 돈을 위해서 십일조를 내게끔 만듭니다.
말라기의 말씀을 완전히 곡해시켜 버립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십일조를 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교회에 십일조를 냅니까?
내 마음을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에 대해 죽게 하고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일이, 사건으로 일어나고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바리새인이 십일조를 내도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십일조를 자기 생애의 개선을 위한 투자로 내니까.
말라기서의 말씀은 십일조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곳간에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지 우리가 곳간에 넘치도록 되는 그 물질의 풍요로움을 겨냥해서 십일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는 일이 십일조를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뜻이지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지구 바깥에 접하도록 가까이 와 있는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이 간 사람들, 그래서 이 지구 위에 남아있는 몸조차도 하나님의 장갑이 된 사람들, 그것이 분명하다면 그렇게 지구 밖의 하나님을 인정 한다면, 반드시 표정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표정이.
그 사람은 십일조를 냅니다.
십일조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된 상태이고, 하나님과 연결이 안됐는데도 혹시 십일조를 낸다 그러면, 악독과 탐욕이 가득한 마음으로, 지구 내에 내 삶을 개선시키겠다는, 그

런 불신앙적인 마음가짐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십일조는, 지구 바깥에 계신 하나님께 송금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일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 자신에게, 내가 지구 바깥에 계신 하나님을 지금 연결되어서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